



김정현 | 동화작가
(kimskorean@naver.com)

하천과 동화

김 판서와 청계천

사회과목 시간에 선생님은 서울 청계천이 생긴 내력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청계천은 원래 시내가 아닌 곳을 일부러 사람들이 땅을 파서 시내가 되게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내를 만들게 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 옛날 한양의 남산골에 청렴하기로 소문난 판서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판서라 하면 옛날의 벼슬 이름이고 오늘날 장관님과 같은 높은 벼슬자리였습니다.

한양은 지금의 우리 서울 옛 이름이었습니다.

김 판서가 사는 남산골은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까지는 거리가 십리길이 넘었습니다. 이런 거리를 김 판서는 나랏일을

보고자 대궐로 갈 때는 매일매일 걸어서 갔습니다.

판서라는 벼슬자리에 있으면 오늘날 우리 장관님들이 타는 관용차와 같은 가마를 타고 대궐로 갔습니다.

관용차라 하면 자가용이 아닌 나라에서 내 준 차를 말합니다. 이런 차는 나랏일을 볼 때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판서는 그때 관용차 같은 가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궐로 갈 때 다른 판서들은 하인들을 여럿이 거느리고 위세를 부리듯 거만하게 가고 하였지만 김 판서는 오직 한 명의 하인만 데리고 대궐로 갔습니다.

이러한 김 판서는 비가 오는 날이거나 비가 온 다음 날이거



나 하면 신발은 물론 발목 부분의 바지 자락이 곧잘 빗물에 젖었습니다. 그것은 걷어가는 길바닥의 빗물이 튀어 오르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김 판서가 대궐로 가는 길바닥은 비가 내리면 언제나 빗물이 흥건해지고 비 내린 다음날까지도 길바닥은 질퍽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린 비의 빗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시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까.

김 판서가 대궐에 가고자 집을 나설 때입니다. 두꺼비 한 마리가 어정어정 김 판서 곁으로 다가 왔습니다. 다가와서는 김 판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대감님, 우산을 갖고 가시죠.”

김 판서는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두꺼비를 내려다보며 “날씨가 좋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두꺼비는 다시 김 판서에게 강조하듯 말을 했습니다.

“분명 비가 옵니다.”

“날씨가 저렇게 좋은데 비가 오다니, 너 나를 놀리는 거

지?”

“아닙니다. 곧 구름이 모여들고 대궐에 도착 못해서 비를 맞을 것입니다.”

두꺼비는 사실이란 듯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김 판서는 그래도 못 믿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구름은 등성등성 떠 있기 만 하지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까.

“알았다. 가다가 비를 만나면 민가에서 빌려가지.” 하고 김 판서는 하인을 재촉해 그대로 갔습니다. 민가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을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갔을까, 김 판서는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판서는 새삼 후터분한 것을 느꼈습니다.

‘두꺼비 말이 맞겠구나…….’

김 판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 판서와 하인은 얼마 못 가서 결국 비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꺼비 말이 딱 맞았습니다. 대감님!” 따르던 하인이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농사꾼들이 쓰는 헛간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김 판서와 하인은 달려 들어갔습니다.

김 판서는 한참 비를 피하고 있어도 비는 언제 그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보이자 하인은 우산을 구하러 인근 민가를 찾아 뛰어 나갔습니다. 그 무렵 어디선가 몇 마리의 개구리들이 움막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 판서는 그들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웬 개구리들이 헛간으로 몰려오지?”

개구리 한 마리가 김 판서를 보자 얼른 절을 하며 공손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 개구리는 김 판서의 옷차림을 보고 금시 높은 벼슬자리의 어른인 줄 안 것입니다.

“대감님도 여기 계십니까요.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피하신 것 같습니다.”

“자네들도 비를 피해서 들어왔는가?”

“네!”

개구리들은 합창하듯 함께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물에서 노는 생물들인데 비를 피하러 오다니 참 이상하구나?”

이 말에 개구리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개구리가 “비록 물에서 노는 우리들이지만 계속 비를 맞거나 물속에 들어 있는 건 싫어합니다. 물속과 땅위를 번갈아 왔다갔다 해야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김 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개구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물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땅으로 나와서 풀숲이나 이런 헛간 같은데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감님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청이라니?”

“이 근처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가 헤엄치며 놀게 천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밭이고 논이고, 또 들이고 해서 우리들이 지낼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길을 내고 해서 우리들이 놀거나 살 곳이 점점 좁아져 갔습니

다. 그래서 청하는 것이운데 사람들이 사는 이곳을 가로 질러 흐르는 계천 하나를 크게 만들어 주도록 임금님께 간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로 질러 흐르는 계천이라……”

김 판서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을 보고 청을 받아주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구리들은 김 판서가 청을 들어 주시는 걸 믿고 모두 함께 “개굴개굴” 기쁨의 소리를 합창하듯 냈습니다.

“너희들 말을 듣고 보니 나도 그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경우는 너희들 말처럼 이곳에 시내 하나라도 없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은통 길바닥으로 흘러내리거나 고이고 해서 내가 대궐로 다니기에 이만저만 불편하지 아니했다. 내 아랫도리가 빗물에 젖기가 예사였다. 그뿐만 아니라 민가의 골목도 물이 차고 해서 야단이더라. 너희들이 청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진작 알고 임금님께 말씀드려 시내가 생기게 해야 했다.”

김 판서는 그날 대궐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도 한양에 비가 오면 난리라 합니다. 그 이유는 북악산 골에서 흘러나오는 물, 인왕산 골에서 흘러나오는 물, 남산 골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온 물이 어느 한 곳으로 모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마차가 다니는 큰 길이나 민가들의 골목길 같은 데가 물이 차서 백성들이 난리를 겪는 일이 없는데 그러 했습니다. 각 골목길마다 수챗물이 빠지는 개골창들이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을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근처 논밭도 쉽게 물이 빠져나가는 시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김 판서의 말에 임금님은 진지하게 듣고 여러 대신들을 모아 의논을 했습니다.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계천을 내는 공사는 적잖은 수의 사람들을 모아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많은데 지금 우리 조정의 재정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 말에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피해도 많이 보고 하는 데 노력봉사도 당연히 따를 줄 여긴다. 그리고 경비부담은 한양 할 것 없이 전국에 알려져 성금을 거두는 방법을 쓰면 될 것 아닌가?”

김 판서는 임금님의 말씀이 참 좋은 안이라고 찬성했습니다.

“우리의 취지를 백성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 합심해서 한양 한복판에 큰 물길을 내리라 믿습니다.” 하였다.

사실 그러하였습니다. 계천 내는 공사가 있자 한양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멀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자진하여 올라와 공사에 참가했습니다.

몇 달 걸려서 공사는 끝났는데 여기에 다리도 놓여지고 하여 마치 작은 강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 계천이 오늘날 우리 서울에서 보는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이래서 생긴 시내였던 것으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없던 시내를 열었다 하는 뜻으로 개천이라 불렀습니다. 한문 글자로 열〈개〉, 내〈천〉자를 써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가서 나라에서 청계천이라 이름 짓고 그렇게 부르라 했습니다. 이 이름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청렴한 김 판서가 청을 하여 시내를 만들었다 해서 붙인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